

ISSUE PAPER

2024 Vol. 04

| 발행인 윤효식

| 발행일 2024. 11. 27.

청소년상담 이슈페이퍼

청소년의 '위기',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다

- 01 '위기' 청소년 vs 청소년 '위기'
- 02 청소년 위기유형의 변화
- 03 청소년 위기의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하다
- 04 청소년 위기의 '미래'를 이야기하다
- 05 정책제언



ISSUE PAPER

청소년상담 이슈페이퍼

2024 Vol. 04

2024 청소년상담이슈페이퍼 4호

인 쇄 : 2024년 11월

발 행 : 2024년 11월

발 행 인 : 윤효식

발 행 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9, 센텀사이언스파크(7층~10층)

T.(051)662-3132 / F.(051)662-3008

<http://www.kyci.or.kr>

인 쇄 처 : 글로벌임팩트

비매품

본 간행물은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본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전재할 수 없습니다.

01 '위기' 청소년 vs 청소년 '위기'

- '위기'는 사전적으로 위험, 손실에 노출된 상황(Oxford Languages) 또는 위험한 고비나 시기(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빈곤, 학대, 폭력, 비행 등 여러 요인을 '위기'라는 개념으로 통칭하고,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으로 개념화하고 있지만, '위기청소년'의 개념은 사회적 합의 없이 다양하게, 때로는 모호하게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윤철경, 2006, 황여정, 2020).
- 우리나라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위기청소년'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외 법령에서도 다양한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위기청소년 정의)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

- 아동복지법(18세 미만의 '보호 대상 아동'을 정의함)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청소년보호법(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피해자 및 가해자 지원), 소년법(비행청소년 보호) 등에서 간접적으로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규정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되고 있음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과거에는 특정 집단에 속한 청소년들이 많은 위기 요인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집단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추주희, 2019). 하지만 최근에는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의 불안정성을 위기의 핵심 요인으로 보는 관점이 자리 잡고 있다(황여정, 2020). 즉 적절한 개입과 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청소년의 위기로 인식하고(황순길 외, 2016), 위기청소년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이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 본 이슈페이퍼는 청소년기의 과업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는 '기능적 한계'에 주목하기보다 이러한 한계를 유발한 '환경'에 주목하여, 개인과 환경 간의 접촉 지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우리 사회 청소년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떠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인지 논의하였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개최한 2024 청소년상담복지포럼 현장에서 청소년상담복지 전문가들이 제안한 위기 청소년의 '현재'와 '미래'의 개입방향을 담아보았다.

02 청소년 위기유형의 변화

□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활동 증가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20년 1월 31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2023년에 이를 해제했다. 약 4년간의 코로나 기간 동안 대다수의 사람들은 삶의 가장 기본적인 접촉을 피하고 일상의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경험하였다. 학령기 청소년들은 학습의 결손뿐만 아니라 또래와 관계를 맺고 일상을 나눌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어려운 시기를 장기간 보낼 수밖에 없었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3).

○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소셜미디어의 급속한 확산

2010년 중반 이후 스마트폰이 일상에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잡게 되면서 청소년들의 생활방식에도 큰 변화를 불러왔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이후 청소년들은 소셜미디어, 유튜브 등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지만, 동시에 사이버폭력, 미디어 과의존 등을 경험하였고, 의사소통의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서미, 유민상, 손영민, 최수정,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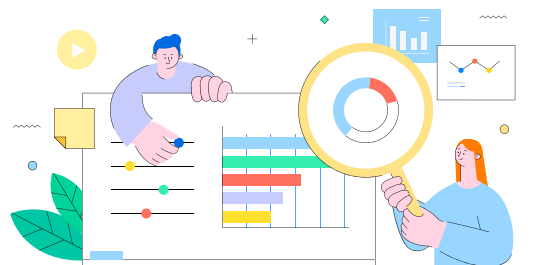
○ 가족 구조의 변화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등 정형적 가족 구조와 역할이 변화했다. 정서적 지원을 포함한 가족 돌봄의 공백이 현실화되면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오영란, 강대성, 2021). 이러한 가족 구조의 변화는 청소년기의 정서적 발달과 삶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고용과 삶의 불안정 증대

노동생산성이 낮은 서비스 부문의 증가는 저임금 일자리의 비중을 높였고, 비전형 노동의 증가로 일자리의 질이 낮아지면서 청년들의 고용과 삶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박나리, 김교성, 2021). 2023년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 조사」에 따르면 고등학생 중 희망직업이 없다고 응시한 비율은 25.5%에 달했으며 그 비율은 2015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이다. 청소년들은 미래의 불안정성을 일찍부터 인식하게 되었고, 취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손명은, 2024).

- 이렇듯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면서 불안, 우울, 자살사고와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청소년들은 증가하고 있으나(청소년 정신건강 행태조사, 2023),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관계망 형성이나 지지체계는 약화된 상황이다. 즉,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품기보다 불안과 긴장이 높아지기 쉬운 환경이라 볼 수 있다.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글로벌 세대의 변화

“Z세대(불안 세대)는 중독성이 강하고 불안정하며 아동과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우주로 유혹하는 ‘포탈’을 주머니 속에 넣고 사춘기를 보낸 최초의 세대가 되었다. 그 우주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하려면 의식 중 상당부분을 자신의 온라인 ‘브랜드’를 관리하는데 쏟아부어야 한다. 끊임없이 계속!”

- 불안세대, 조너던 하이트(2024)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혁명이 진행된 2013년 이후 태어난 세대를 알파 세대로 분류한다. 이들은 유모차에서부터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보아왔고, 인생의 4분의 1가량을 코로나 규제 속에서 자라왔다. 불투명한 시대에 태어난 알파 세대는 정신건강의 위험성이 어느 때보다 높았던 Z세대의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 제너레이션, 세대란 무엇인가, 진 트웬지(2023)

□ 청소년 新위기유형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2022년 ‘청소년 문제 유형 분류를 위한 기초연구’에서 위기유형의 변화를 살펴 보기 위해 문헌조사, 청소년종합상담시스템(CYS-Net) 호소문제 분석,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대상의 포커스 그룹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아래의 청소년 新위기유형은 2010년 이후 새롭게 등장하였거나 큰 폭으로 증가한 위기유형을 의미한다(서미 외, 2022).

○ 미디어 과의존

과도한 디지털미디어 이용으로 의존성이 증가하고, 조절을 자율적으로 하지 못해 일상생활의 부적응을 경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2023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청소년의 40.1%가 과의존 위험군으로 나타났으며, 2021년부터 3년간 위험군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3).

○ 사이버폭력

사이버폭력은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사이버공간에서 언어, 문자, 영상을 통해 타인에게 피해 혹은 불안감, 불쾌감을 주는 행위이다(방송통신위원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4). 사이버폭력은 시공간의 제약이 없이 쉽게 발생할 수 있고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전파되어 더 넓고 깊은 피해를 남길 수 있다.

○ 사이버도박

사이버도박은 전자화폐나 전자 금융거래를 이용하여 결제가 이루어지며, 청소년기 또래집단 사이에 하나의 놀이문화로 퍼지고 있다. 청소년들의 사이버도박은 도박 빛이라는 경제적인 문제와 중독이라는 심리적인 문제를 복합적으로 가지게 되며, 19세 이하 도박중독 치료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제출자료 재구성(2022), 이태규 의원실

○ 사회적 고립·은둔

고립은 관계의 물리적 단절을 의미하며, 은둔이란 자신의 방이나 집 안에만 머무는 상태를 의미한다. 13세에서 18세 사이의 고립·은둔 청소년은 약 14만 명 규모로 추정되며, 이들에게 적절한 사회적 지원이 제공되지 못하면 성인기까지 고립·은둔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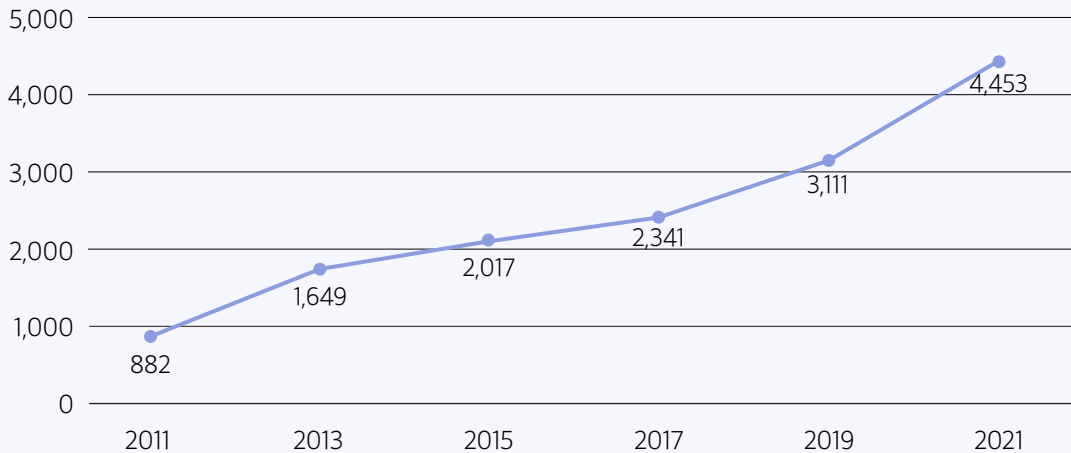
○ 정신건강 취약

정신건강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로, 단지 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삶의 행복과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라 정의된다. 정신건강 관련 세부적인 요인으로는 신체화, 불안, 우울, 자살·자해, 스트레스 등이 있다. 정신건강이 취약한 청소년의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17.4%가 경도 이상의 우울, 13.0%가 불안 증상에 노출되어 있으며 16.4%는 자살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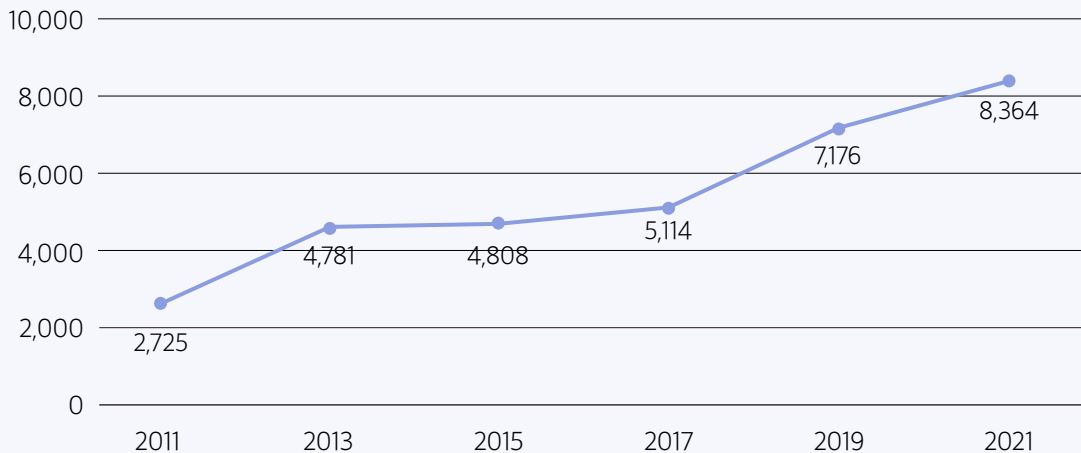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 청소년 대상 연도별 정신건강 취약 상담건수

- 2011년~2021년 청소년안전망시스템(CYS-Net)의 호소문제별 상담건수를 분석함.
- 정신건강 취약을 의미하는 우울/위축과 강박/불안의 상담건수는 2011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강박/불안은 5배 이상 증가, 우울/위축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강박/불안>



<우울/위축>



※ 출처: 청소년 문제유형 분류를 위한 기초연구(2022),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03 청소년 위기의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하다

청소년상담자들과 대화 : 청소년 위기의 어제와 오늘

□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상담 현장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청소년 위기의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조력해 온 청소년상담자들을 만났다. 대화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아래의 내용은 대화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 상담자 A

청소년 상담경력 15년, 청소년 동반자로 5년 이상 활동한 후 현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음.

○ 상담자 B

청소년 상담경력 10년, 상담수련 이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전일제 동반자로 오랫동안 근무하고 있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위기청소년’은 누구인가요?”



상담자 A

제가 처음 근무할 때만 해도 학교폭력, 자살·자해 같은 문제유형 중심으로 구분하고 그 대상을 ‘위기청소년’이라고 표현했었어요. 요즘에는 문제행동 아래에 깔려있는 상황들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특정해서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일까 이런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새로운 문제 영역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 누군가를 특정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요. ‘청소년들은 다 위기의 가능성을 담고 있다’ 이렇게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저도 비슷한 고민이 있어요. 워낙 많은 사례가 들어오는데, 우선적으로 개입하고 집중해야 하는 사례들을 선별해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청소년기가 발달단계 상 아동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다 보니 가족관계, 성적, 외모, 정신건강 이런 것들이 쉽게 위기의 씨앗이 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모두가 잠재적인 위기청소년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이할 만한 점은 요즘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정신건강에 관심이 많고,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그 문제로 상담실을 찾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에요.



상담자 B

“청소년들의 변화를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어떠한 부분에서 변화가 큰 것 같나요?”



상담자 A

무엇보다 정신건강 관련한 변화를 크게 느껴요. 요즘엔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을 본인이 지각을 해서 체크를 하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정신과를 다녀오거나 약물을 처방받아서 오는 청소년들이 꽤 많이 늘었어요. 이전에 비해서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정보를 직접 찾을 수 있으니** 청소년들이 ‘나는 우울증이야’, ‘나는 공황장애를 경험했어’, ‘나는 불안이 심해’ 이렇게 인지를 하고 찾아오는 거죠.

상담경력이 10년이 지났는데 청소년들의 호소 문제나 증상이 정말 빨리 변하고 있구나를 요즘 들어 더 느끼고 있어요. 그 가운데는 코로나가 있어요. 그 시기에 중요한 발달 과업을 이루지 못한 청소년들은 아직도 그 영향을 받고 있는거죠. 또한 인터넷 접근성이 높아지니까 예전에는 과몰입 정도였다면 지금은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해요. 도박, 게임, 그루밍 범죄, 명품 소비 등이 이루어지는 거죠. **문화는 자극적이고 중독적인데 외로움은 더 많아지게 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세상이 변하면서 공부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시대가 아닌데 **여전히 학업에 대한 부담은 변하지 않는 것은 의외인 부분이에요.**



상담자 B

“청소년들의 위기 수준을 선별해야 하는 것이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상담자 A

그럼에도 위기인 청소년들을 걸러내고 적절한 개입을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니까요. 취약계층 혹은 ‘**위기청소년**’이라는 타이틀이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환경이 어렵고 힘든 아이들이긴 하지만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 상담을 요청하고, 그 안에서 **자립과 진로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회복 탄력성이 높은 청소년들이 있거든요.** 우리도 훈련을 받지는 못했잖아요. 이런 위기가 닥치면 이렇게 대처를 하라는 매뉴얼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그냥 어떻게든 버티고 참아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좀 도와주세요’라고 호소조차 할 수 없는 아이들이 정말 위기라고 생각해요.

어떤 기준으로 ‘위기’ 청소년과 ‘덜 위기’인 청소년을 구분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호소하는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받고 있는지 살펴봐요. **주관적인 불편감이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살피는 거죠.** 상처도 지혈 먼저하고 치료하는 것처럼. 상담자의 역량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청소년의 지식이 많아지고 **호소가 보다 구체적인 만큼 저희가 제공하는 개입의 질도 높아져야죠.** 상담을 기본으로 하지만 지원제도에 대한 지식과 네트워크 역량도 필요하고요.



상담자 B

“현장에서 위기에 있는 청소년을 만나는 상담자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고 무거운 것 같아요. 상담자분들이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상담자 A

수시로 번아웃이 오는 이러한 업무 현장에서 계속 청소년들과 만나고 있는 자신에게 ‘어떻게 계속 이 청소년들과 만나고 있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저도 청소년기에 방황을 했었는데 그때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지원받고 도움받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주는 보람도 커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했던 아이들이 조금씩 변하고 자신의 비전과 진로를 설계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저희에게겐 성공 사례들입니다.** 조금 버티고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준다면 아이들이 잘 이겨낼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버팀목이 이 공간과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며 힘을 내고 있어요.

맞아요.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고 열심히 해내는 제 모습이 좋기 때문에 저도 계속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청소년상담자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더 좋겠어요.** 처우가 개선되고 자기 계발의 기회가 확대된다면 능력 있는 상담자들이 자리를 더 오래 지킬 수 있겠지요.



상담자 B



상담자 A

‘위기청소년’이라는 무게감이 너무 크죠. 발달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청소년들이 맞이한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면 농도가 조금 열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청소년들이 모두 저력이 있고 적절한 기회를 만난다면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믿습니다.**

-현장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 재구성-

청소년상담자들과의 대화가 남긴 것

- 현장의 상담자들은 청소년의 위기상황이 빠르게 변하고 다양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청소년에게 희망과 가능성을 보고 있었다. 전문적인 상담과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성공 사례가 존재하는데 그만큼 알려지지 못하는 것에 아쉬움도 토로했다. 이들이 말하는 청소년 위기의 현재는 ‘일상’이자 ‘가능성’이었다.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을 매일 만나고 있지만 ‘위기’라는 말이 주는 무게감을 조금 덜어내고, 상담자의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의 관심으로 회복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04 위기청소년의 ‘미래’를 이야기하다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매해 청소년 상담복지 분야의 이론적 경향과 현장의 목소리를 나누고 토론하는 ‘청소년상담복지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위기청소년의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미래의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방안과 상담복지 영역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 청소년상담복지포럼 강연자와 토론자들의 이야기



정재민 변호사

우리 사회의 범죄로 보는 청소년의 비행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미래인 것처럼, 청소년의 범죄가 우리 사회 미래의 범죄가 될 수 있다. 청소년 비행에 온 사회가 나서야 하는 이유는 ‘정의’와 ‘민주주의’가 관여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에게는 학교 등을 통한 다양한 방식의 교육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기에 일반적 예방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갖자.”

- 법무법인 예문정앤파트너스



차주완 부장

청소년 안전망에서의 위기청소년 유형 변화와 현장의 노력

“위기청소년 지원은 한 기관의 노력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지역사회 시민들과 기관이 서로 주체가 되어 위기청소년을 발견·구조하는데 협력하는 ‘청소년 안전망’은 우리 사회 위기청소년 지원의 ‘현재이자, 미래’이다.”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복지연구부



김영근 교수

대학 학생상담센터 위기청소년을 중심으로

“아동학대와 같은 심각한 트라우마부터 관계 안에서의 상처도 결국은 안정적인 관계를 통해 건강한 상태로 회복될 수 있다. 위기청소년에게는 이들을 만나는 상담자가 안전한 관계가 될 수 있다. 거시적 차원에서 많은 청소년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청소년상담사의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 인제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과



유혜진 센터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위기 문제가 다양하고 심각해지고 있으며 미래에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은 상담 전문 기관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역할과 상담자의 전문성이 중요한 수밖에 없다. 안락한 상담 공간의 확보에서부터 거시적인 상담 정책 수립까지 정체되지 말고 나아가야 한다.”

- 서울특별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장주현 소장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상담자의 역할

“가족구조의 변화로 가정 내에서 정서적 지지가 부족한 청소년이 많아지고 있다. 가정 밖으로 나온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상담, 취업 지원, 멘토링 등 지원 방식의 확대와 다양화가 필요하다.”

- 부산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관(혼합형)



심규보 대표

위기청소년을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

“경미한 소년범부터 마약사범까지, 지난 10년간 많은 위기청소년을 만나왔다. 코로나 이후 청소년의 변화를 절감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사회성이 떨어지고 범죄유형도 많이 바뀌었다. 하지만 청소년이 잘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협력해 주셨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사회가 위기청소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한다.”

- 별을 만드는 사람들



김준용 기자

취재 현장에서의 만나는 위기청소년

“세상에 없을 법한 일들이 기사가 되니 청소년 보도는 갈수록 자극적일 수밖에 없고, 이러한 기사는 다시 청소년을 자극한다. 기사뿐만 아니라 자극적인 콘텐츠가 넘쳐나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청소년 기사에 대한 보도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부산일보



백정원 박사

위기청소년을 위한 보호자의 역할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이 이들을 위기로 내모는 것은 아닐까 고민이 깊었다. 청소년의 가장 중요한 환경은 바로 ‘부모’일 수밖에 없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부모의 역할도 바뀌어 왔다.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긍정적인 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안내하고, 역량을 키워주는 노력이 확대되어야 한다.”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복지연구부

□ 2024 청소년상담복지포럼의 뒷이야기

- 강연자와 토론자들은 청소년 위기의 해법을 찾기 위해 각 영역의 전문가들의 경험과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장으로서 이번 포럼이 충분한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온/오프라인에서 포럼을 지켜본 참여자들 또한 청소년 위기 상황의 변화를 알게 되었고, 다방면에서 위기청소년을 돕고 있다는 점에서 힘이 되었다고 전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로 청소년 관련 이슈에 대한 각 영역의 고민을 나누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4 청소년상담복지포럼 다시보기

유튜브 “KYCI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채널에서 시청 가능
(<https://www.youtube.com/watch?v=tuU-BHNNCaA>)



05 정책제언

□ 빠르게 변하는 청소년 위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 지속

-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이해하고 정책 및 개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청소년 문화의 최신 경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현재 위기청소년 실태조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정신건강 실태조사(보건복지부), 학교폭력 실태조사(교육부),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여성가족부)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확보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기 상황에 적합한 개입 전략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또한 청소년상담복지 정책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부모를 포함한 청소년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의견과 경험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매년 연구주제 관련 대국민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청소년과 부모 및 청소년상담복지 종사자들의 인터뷰와 설문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 청소년상담자의 역할 재정립: 상담과 복지를 아우르는 전문성 강화 중요

- 청소년 위기유형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청소년상담자의 전문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청소년상담자는 청소년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이해하고 정서적 개입뿐만 아니라 긴급상황에 대한 개입, 법적 정보를 활용한 제도적 지원, 타기관 연계, 교육 및 예방 활동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 청소년상담자들은 비자발적 내담자를 만나는 경우가 많고,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 업무의 모호성을 느끼고, 아웃리치, 기관 연계 등 다중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역할스트레스를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박호용, 민경화, 2021).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의하면 청소년상담복지 직무에는 전문상담서비스, 보호 및 위기개입, 지역사회 연계망 운영 등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최전방에서 위기의 청소년을 만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적인 역할이기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상담자들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이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직무에 대한 규정 제시, 적절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역량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제시 등이 필요할 것이다.



□ 위기에 처한 청소년의 보호요인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청소년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긍정적으로 성장한 청소년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이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긍정적인 요인을 지각하고 강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가족의 정서적 지지, 지역사회의 멘토링 등 외부의 긍정적인 관계와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등 내적 자원을 강화하면서 이들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 특히 청소년 위기상황의 극복 과정에서 보호요인 강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은 주로 문제 중심 접근이었다. 자신의 긍정적인 면을 인식하고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보호요인을 강화하고 예방적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청소년 위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 필요

-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소셜 미디어의 확산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사이버폭력이 늘어나고 있다. 지금의 청소년 세대는 누구보다 사이버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환경 개선이 없다면 다음 세대도 정신건강이 취약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청소년 사이버 환경 개선을 위한 유해 사이트 차단,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 등 법적 규제와 콘텐츠 필터링 등 안전 기술 도입에 대한 전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 사이버 환경뿐 아니라 유해매체, 도박, 마약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요소를 차단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청소년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지역사회 안전망 확대 필요

- 청소년 안전망이란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이며, 2005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역 내 전문가와 협력하여 청소년들이 겪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한 상담·보호·의료·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3).
- 이렇게 구축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지역사회가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더욱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 위해서는 통합사례관리의 고도화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한 사례 관리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 현장의 상담자들은 지역사회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청소년들의 위기를 발굴하기도, 적절하게 개입하기도 쉽지 않다고 전했다. 지역사회에서 멘토가 연결되고, 지속적인 관계와 사후관리를 통해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가 나의 성장을 지켜보며 관심을 가지는구나'라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 청소년안전망시스템 구축으로 지역사회 통합사례관리의 기반 마련

- 청소년안전망시스템은 사업별·부처별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지원 서비스를 일원화하여 '위기 청소년'의 발견부터 보호 종료까지 전 개입 과정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통합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3년 6월 개통된 위기청소년 통합사례관리 시스템이다.
- 청소년은 "청소년 1388 포털"로 언제·어디서든 본인의 문제상황을 점검하고 간편하게 위기 청소년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전문가는 신속한 사례 발굴 및 즉각적인 개입을 실시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안전망시스템의 기관별(경찰청, 병무청 등)·부처별(복지부, 교육부 등) 연계 기능 강화는 특정 기관에 한정된 제한적 서비스가 아니라 위기청소년의 회복에 초점을 둔 통합사례 관리가 가능해졌다는 사실에 큰 의미가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3). 2023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 문찬주, 김민경, 최광성, 황승록, 방혜진, 김민석 (2023).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2023). 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박나리, 김교성 (2021). 청년 불안정성의 궤적과 유형: 20대 청년의 고용, 소득, 부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8(3), 45-74.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4). 2023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 서미, 유민상, 손영민, 최수정 (2022). 청소년 문제유형 분류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손명은 (2024). 청소년의 희망직업 부재에 대한 유형화: 계층-젠더의 교차성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5(4), 109-129.
- 오영란, 강대선 (2021). 가족구조 변화와 지역공동체의 대안적 친밀성의 가능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NGO 연구, 16(3), 61-105.
- 여성가족부 (2023). 2023년 청소년사업안내. 여성가족부.
- 윤철경 (2006).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실태와 발전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혜림, 차유림 (2018). 위기청소년의 '조력을 받을 권리'제도화 방안. Bluenote: 이슈 & 정책, 104, 1-2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조너선 하이트 (2024). 불안세대. 웅진지식하우스.
- 진 트웬지 (2023). 제너레이션: 세대란 무엇인가. 매일경제신문사.
-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2023. 4.14.) 2022년 학생 건강검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발표.
- 추주희 (2019). 소년 혐오인가 사회 위기인가?: 위기청소년 담론에 대한 비판적 시론. 경제와사회, 127-161.
- 최정원, 문호영, 전진아, 박용천 (2021).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3). 청소년상담 이슈페이퍼. 코로나4년 청소년 마음기록, 우리는 지금 회복 중입니다.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4). 청소년상담 이슈페이퍼. 혹시... 우리 아이가 고립·은둔청소년.
- 황순길, 김동민, 강태훈, 손재환, 김지혜 (2016). 전국 청소년 위기실태 및 위기결과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8(4), 47-70.
- 황여정 (2020). 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기초연구: 예비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